

다니엘의 책 - 번호 188

라피아에서 파니온까지: 고대 전투의 예언적 의의 조명

Jeff Pippenger

2024-04-18

라피아 전투와 파니움 전투는 서로 다른 시기와 맥락에서 일어난 별개의 역사적 사건이지만, 둘 다 고대 유대와 그 주변 지역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라피아 전투는 기원전 217년에 일어났다. 파니움 전투는 기원전 200년에 셀레우코스 왕국(북방의 왕)과 프톨레마이오스 왕국(남방의 왕) 사이에서 벌어졌다. 이 두 전투는 다니엘서 11장 11절부터 15절에 언급되어 있다. 이 두 전투는 기원전 167년의 마카베오 반란에 앞섰다.

파니움 전투는 전투가 벌어진 인근 지형인 파니움 산에서 그 이름을 따왔다. 파니움이라는 이름은 그곳에 그를 위한 사원이 세워져 있던 그리스의 신 판에서 유래했다. 이곳은 판에 대한 숭배와 관련되어 '파니움'으로 알려졌다. 그 사원 단지는 종종 '판의 성소'라고 불렸는데, 이는 신 판에게 바쳐진 종교적 헌신과 숭배의 장소라는 성격을 강조하는 명칭이다. '넴페움'이라는 용어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 종교에서 물의 님프에게 바쳐진 기념물이나 성소를 가리킨다. 파니움의 사원 단지에는 동굴과 천연 샘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곳에는 님프가 산다고 믿어졌으므로 때때로 '파니움의 넴페움'이라고도 불렸다.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빌립이 도시를 재건하고 확장한 뒤, 로마 황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와 헤롯 빌립 자신을 기려 그 도시는 가이사라 빌립보로 불리게 되었다. 이 도시 내에서 그 신전 단지는 중요한 종교적 중심지였다.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치세에 그 사원은 아우구스투스를 기리기 위해 재봉헌되거나 개칭되었으며, 이는 황제 숭배와 로마의 종교 관행이 지역 종교 환경에 통합되었음을 반영했다. 판의 신전이 있던 고대 도시 가이사라 필리피 인근 지역은 때때로 "지옥의 문" 또는 "하데스의 문"으로 불렸다.

다니엘서 11장 16절부터 19절에는, 이 장에서 북방 왕이자 성경 예언의 네 번째 왕국으로 확립되기 위해 이교 로마가 극복해야 했던 세 지리적 정복 지역이 제시되어 있다. 16절에서는 로마 장군 폼페이가가 기원전 65년에 시리아를, 이어 기원전 63년에 예루살렘을 정복한 것으로 언급된다. 17절부터 19절은 세 장애물 가운데 셋째인 이집트를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정복한 것으로 밝힌다. 기원전 31년의 악티움 해전은 다니엘서 11장 24절의 성취로서, 이교 로마가 최고 권세로 통치하는 360년의 시작을 표시한다.

20절에서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통치가 언급되며, 그 역사적 시기에 예수가 태어났다. 이어 21절과 22절에서는 사악한 티베리우스 황제의 통치가 지목되어, 그리스도의 십자가형이 그 시점으로 지목된다. 23절에서는 마카베오 유대인들이 이교 로마와 맺은 동맹이 언급되며, 이로써 11절에서 시작된 역사적 흐름이 중단되고, 서술은 기원전 161년에서 158년 시대로 되돌아간다.

23절은 마카비 가문의 계보를 나타내며, 그들의 예언적 계보에 관한 모든 세부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역사의 기록이 그것을 전한다. 기원전 217년에 라피아 전투가 벌어졌고, 그 여파로 어린 왕이 즉위하면서 이집트는 취약해졌다. 기원전 200년에 셀레우코스와 그리스의 왕들이 그 어린 왕을 상대할 계획을 세우자, 로마가 역사에 개입하여 이집트의 어린 왕의 수호자가 되었다. 같은 해 파니움 전투가 벌어졌다. 이어 기원전 167년에 마카비의 게릴라전이 시작되었다.

마카베오 반란은 기원전 167년 모딘에서 시작되었으며, 마카베오는 셀레우코스 제국과 맞서 싸웠을 뿐 아니라 그들이 셀레우코스와 동맹을 맺었다고 판단한 유대인들과도 맞섰다. 이 반란은 종교적 동기에 따른 것이었고,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을 상대로 수행되었다. 기원전 164년에 마카베오는 성전을 다시 봉헌했으며, 이 사건은 유대교 축일 하누카로 기념된다. 그 해에 악명 높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사망했다. 이어 기원전 161년부터 158년까지 23절의 “동맹”이 로마와 체결되었다.

마카비와 그들의 반란, 그리고 로마와의 동맹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23절에만 나오지만, 하스몬 왕조라 불리는 그 왕조의 역사는 기원전 167년 모딘에서 시작되어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다. 하스몬 왕조의 최후의 대표자들은 그리스도 시대의 바리새인들이었다. 그러므로 마카비로 대표되는 배교한 유대교의 역사에 대한 예언적 흐름이 있는데, 그것은 기원전 167년 모딘의 반란에서 시작되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21절과 22절에서 끝난다.

그들의 역사는 16절에서 전환점을 맞았는데, 그때 로마는 폼페이우스를 통해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정복했다. 그가 그때 예루살렘에 파괴를 가한 주된 동기는 하스모니안 왕조의 두 파벌 사이의 분쟁이었다. 그 시점(기원전 63년)부터 유다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 마카비 가문의 하스모니안 왕조는 기원전 167년 모데인 전투에서 예언적으로 시작되며, 이어 기원전 63년에 로마의 예속 아래에 놓인다. 그 역사 시작 직후 마카비 가문은 기원전 161년부터 158년까지 로마와 동맹을 추진하고 체결했다. 그들은 기원전 63년부터 십자가와 서기 70년 예루살렘의 최종적인 파괴에 이르기까지 로마의 예속 아래에 있었다.

마카비의 예언적 계열은 배도한 유대교의 계열이며, 그러므로 배도한 개신교의 계열을 예표한다. 파니움 전투로부터 16절의 일요일 법령에 이르기까지 기원전 200년, 기원전 167년, 기원전 164년, 그리고 기원전 161년부터 158년까지의 동맹과 관련된 예언적 사건들이 배도한 개신교의 역사 속에서 반복될 것이다. 이러한 이정표들은 일요일 법령에 앞서, 일곱에 속한 여덟째 대통령의 역사 속에서 일어날 것이다. 기원전 167년이 배도한 개신교의 뿌리의 내적 계열을 나타내는 것과 관련하여, 기원전 200년은 공화주의의 뿌리의 외적 계열을 나타낸다.

이러한 이정표들은 본질적으로 하스몬 왕조의 역사적 계보 속에 숨겨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서 11장 40절의 숨겨진 역사의 일부를 이룬다. 이는 ‘말세와 관련된 다니엘서의 예언의 그 부분’에 속한 한 줄기이다.

유대교가 마카비의 반란을 기념하여 하누카를 지낸다는 사실이 마카비를 의인으로 규정해 주는 것은 아니다. 반역 때문에 세키나는 칠십 년 포로 생활 이후 재건된 성전에 결코 돌아오지 않았다. 최후의 예언적 메시지는 마카비보다 대략 두 세기 앞서 말라기를

통해 전해졌다. 마카비의 역사에 따르면, 그들은 정치 지도자들이 대제사장 역할도 겸하도록 허용했는데, 이는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가 시도했고 윗시야 왕도 시도했던 바로 그 죄였다. 전승에 따르면 하나님은 프톨레마이오스가 그 신성모독적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개입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윗시야 왕이 제사장과 왕의 일을 하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실제로 개입하셨음을 직접 밝히고 있다. 그들의 왕조가 맺은 최종적인 열매는 바리새인들이었다. 현대 유대교의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 그들에게 존경을 표한다 해도, 마카비가 의로움의 상징이었다고 결론지을 이유는 없다.

종교개혁은 루터 시대에 시작되었고, 점진적으로 전개되었다. 그것은 새로운 전통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개신교도였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은 루터와 다른 개혁자들이 깨어났던 역사의 어둠에 대한 각성이었다. 그 점진적 개혁의 절정은 밀러주의 운동이었다. 하나님은 초기 개혁자들에게 바벨론의 죄를 깨닫게 하실 필요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그분의 율법과 하늘 성소에서 그분의 사역에 대한 온전한 이해로 이끌고자 하셨다. 1844년 4월 19일, 개신교는 더해 가는 개혁의 빛을 거절하고 배도한 개신교가 되었다.

그때 신실한 밀러주의자들은 "망토를 부여받고" 성숙한 개신교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사역을 마치도록 지성소로 인도되었다. 1863년에 그 망토를 받았던 이들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개신교의 망토를 제쳐놓고 라오디게아의 망토를 걸쳤다. 2001년 9월 11일로부터 22년 후인 2023년에 시작된, 십사만 사천을 인치는 일의 마지막 기간에, 유다 지파의 사자께서 다니엘 11장 40절의 숨겨진 역사를 채워 주는 진리들의 봉인을 떼고 계신데, 그것은 1989년 소련의 붕괴로부터 곧 다가올 일요일 법령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이다. 이 일을 하시는 가운데, 그분은 배도한 개신교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배도한 유대교의 역사의 봉인을 떼셨다.

하나님의 배도한 백성의 두 흐름, 곧 문자적 유다와 영적 유다(둘 다 영화로운 땅)는 모두 예루살렘의 정복으로 끝나는데, 전자는 기원전 63년에, 후자는 곧 다가올 일요일 법령 때에 그렇게 된다. 두 흐름 모두 그릇된 종교적 신념에 의해 촉발된 전쟁을 나타낸다. 두 흐름은 또한 헬라의 종교 철학에 대항하는 전쟁을 나타내며, 결국 배도자들이 로마에 예속되는 것으로 끝난다. 나는 40절의 세 전투를 1989년 소련의 붕괴,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일요일 법령 때의 파니움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는 그 세 전투와 세 차례의 세계대전을 구별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임박한 위험을 경고해 왔다. 그러나 이 경고를 외면한다면, 개신교 세계는 로마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울무를 벗어나기에는 너무 늦은 때에 가서야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로마는 조용히 권세를 키워 가고 있다. 그 교리들은 입법의 전당과 교회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로마는 높고 거대한 구조물들을 쌓아 올리고 있는데, 그 은밀한 구석구석에서는 과거의 박해가 되풀이될 것이다. 로마는 눈에 띄지 않게, 의심을 사지 않으면서, 때가 와서 일격을 가하게 될 때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세력을 강화하고 있다. 로마가 원하는 것은 유리한 고지뿐이며, 그것은 이미 로마에게 주어지고 있다. 우리는 머지않아 로마 세력의 목적이 무엇인지 보게 될 것이며, 또 피부로 느끼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누구나 그로 인해 비난과 박해를 당할 것이다. 위대한 논쟁, 581.

1989년 소련의 붕괴를 지목하는 10절에서 15절의 파니움 전투에 이르기까지, 교황권은 "타격을 가할 때가 오면 자신의 목적을 더욱 추진하기 위해 세력을 강화해 왔다." 이 절들은 교황권이 준비해 놓은, "벗어날 수 없는" "울무"가 되는 예언적 정황을 밝힌다. 파니움 전투로 대표되는 최후의 교전에서, 짐승의 형상이 미국에서 형성될 것이다. 그 형상이 형성되는 일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최후의 시험이다.

주님께서는 은혜의 시간이 끝나기 전에 짐승의 우상이 세워질 것임을 내게 분명히 보여 주셨다. 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질 큰 시험이 되어, 그 시험으로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 이 주제는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 [요한계시록 13:11-17, 인용].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인침을 받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시련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고 위조된 안식일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입증한 모든 사람은 주 하나님 여호와와 기치 아래 설 것이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늘에서 기원한 진리를 내어주고 일요일 안식일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다." Manuscript Releases, volume 15, 15.

짐승의 우상의 형성은 로마와의 동맹이 체결된 시기로 표상된다. 미국의 개신교 세력은 1844년에 로마의 딸들이 되었고, 그들이 다시 한 번 어머니를 본받기로 결심할 때 그들의 역사의 시작이 그들의 역사 말기에 반복된다.

나는 두 뿔 달린 짐승이 용의 입을 가지고 있고, 그의 권세가 그의 머리에 있으며, 칙령이 그의 입에서 나올 것임을 보았다. 그때 나는 음녀들의 어머니를 보았는데, 그 어머니는 딸들이 아니라 그들과는 분리되고 구별된 존재였다. 그녀의 때는 이미 지나갔고, 그녀의 딸들, 곧 개신교 분파들이 그다음으로 무대에 올라 어머니가 성도들을 박해하던 때 가졌던 그와 같은 마음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겼다. 나는 어머니의 권세가 쇠퇴해 오는 동안 딸들은 성장해 왔고, 머지않아 그들이 한때 어머니가 행사했던 권세를 행사하게 될 것을 보았다.

나는 명목상의 교회와 명목상의 재림교인들이 유다처럼 우리를 가톨릭 측에 넘겨, 그들의 영향력을 얻어 진리를 대적하려 하리라는 것을 보았다. 그때 성도들은 가톨릭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과 관습을 아는 교회들과 명목상의 재림교인들(그들은 안식일을 반박할 수 없었기에 그로 인해 우리를 미워하였다)은 성도들을 배반하고 그들을 가톨릭 측에 고발하여, 그들이 백성의 제도를 무시하는 자들이라고 할 것이다. 곧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일요일은 무시한다고.

"그때 가톨릭 신자들은 개신교인들에게 나아가라고 하고, 개신교인들은 일곱째 날 대신 한 주의 첫째 날을 지키지 않는 모든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칙령을 내린다. 그리고 수가 많은 가톨릭 신자들은 개신교인들의 편에 설 것이다. 가톨릭은 그 권세를 짐승의 형상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개신교인들은 성도들을 멀하려고 그들의 어머니가 앞서 행하던 대로 행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칙령이 열매를 맺기 전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건짐을 받을 것이다." 스폴딩과 매건, 1, 2.

그 본문에는 '명목상'(즉 '이름뿐인')이라고 불리는 두 부류가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을 가톨릭 신자들에게 배반하여 넘긴다. 엘렌 화잇이 이해한 명목상의

교회들과 명목상의 재림교인들은 말세에 그것들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와는 다르다. 그녀가 이해한 '명목상의 재림교인'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을 가리켰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살던 시대보다 말세를 더 많이 말하며, 말세의 '명목상의 재림교인'은 라오디게아적 상태의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를 대표하고, 명목상의 교회들은 1844년에 로마의 딸들이 되었던 자들의 후예들이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은 하나님의 참된 대표자인 '무명한 사람들'을 미워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땅의 안식'을 나타내는 '안식일 진리'를 반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는 제칠일을 예배의 날로 지킨다고 주장하지만, 마지막 때에 그들이 반박할 수 없는 안식은 레위기 26장의 '일곱 때'이며, 그것은 그들이 1863년에 처음으로 거절한 첫 기초 진리였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본문은 곧 다가올 일요일 법령에서 시작되는 역사와 관련된 예언적 양상을 밝혀 주고 있지만, 일요일 법령 이후에 이어지는 최종 시험의 역사는 먼저 미국에서 이루어진다. 일요일 법령이 시행될 때 미국은 전 세계로 하여금 짐승의 우상을 세우도록 강요할 것이지만, 그 일을 이루기 전에 미국 안에서 이미 짐승의 우상을 세워 놓을 것이다.

“종교적 자유의 땅인 미국이 양심을 강요하고 사람들에게 거짓 안식일을 존중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교황권과 연합하게 될 때, 지구상의 모든 나라의 백성들은 그 본을 따라가도록 이끌리게 될 것이다.” Testimonies, volume 6, 18.

“외국의 여러 나라들은 미국의 본을 따를 것이다. 비록 미국이 앞장서지만, 동일한 위기가 우리 백성에게도 세계 모든 지역에서 닥쳐올 것이다.” 『교회증언』 제6권, 395.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큰 시험은 일요일 법령 이전에 일어난다. 왜냐하면 일요일 법령 때에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에게 은혜의 문이 닫히기 때문이다. 그 시험은 짐승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표현되며, 짐승의 형상은 교회와 국가가 결합하되 그 관계에서 교회가 통제권을 쥐는 것을 뜻한다. 1844년에 개신교가 로마의 딸이 되었고, 딸은 어머니의 형상인 것처럼, 배도한 개신교인들은 마지막 때에 유사한 일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는 예수님께서 항상 어떤 것의 끝을 그 시작으로 보여 주시기 때문이다.

다니엘서 11장 23절의 “동맹”이 가리키는 역사는, 영화로운 땅의 신앙을 자칭하지만 배도한 백성이 로마와 연합을 이루려 손을 뻗는 것을 보여 준다. 기원전 161년부터 158년까지의 기간은 주일법에서 절정에 이르게 될 짐승의 우상이 형성되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그러면 ‘그 짐승의 우상’이란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 우상은 두 뿔 가진 짐승에 의해 만들어지며, 그 짐승에게 속한 우상이다. 또한 그것은 그 짐승의 우상이라고도 불린다. 그러므로 그 우상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형성될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짐승 자체 곧 교황권의 특성들을 연구해야 한다.

“초기 교회가 복음의 단순성에서 떠나 이교의 의식과 관습을 받아들임으로써 부패하게 되었을 때, 그녀는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백성의 양심을 지배하기 위하여 세속 권력의 지원을 구하였다. 그 결과는 교황권이었으니, 곧 국가의 권력을 통제하고 그것을 자기 자신의 목적, 특히 ‘이단’을 처벌하는 일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교회였다. 미국이 그 짐승의 우상을 형성하기 위하여는, 종교적 권력이 시민 정부를 것처럼 통제하여 국가의 권위 또한 교회에 의하여 자기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각 시대의 대쟁투』, 443.